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63.51	↓ 코스닥	743.31
	(-13.37)		(-8.50)
↑ 금리 (미국 9년)	2.960	↑ 환율 (원/달러)	1395.75
	(+0.042)		(+17.15)

## 혁신 저해 안전제일주의 팽배... '소통의 벽' 제거해야

### 위기의 삼성, 골든타임 잡아라

#### <中> 혁신은 내부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위에서 위협부담이 크다면 편지를 주는데 어떻게 앞서 나갑니까?”

삼성전자가 경직된 사내 분위기를 쇠신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신청 받고 대대적인 조직 쇠신에 나선다. 그러나 내부 인력들은 더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안전주의와 보고를 위한 회의, 보고서 작성으로 점철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메트로경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삼성전자가 CL4 이상 인사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과 동시에 통상 12월 진행하던 사장단·임원 인사를 11월 중 진행한다.

#### 삼성, 조직개편 위해 희망퇴직 고령화 심화·인력적체 지적에

“단순한 인력 감축만으로 한계 이미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

삼성전자가 예년 보다 이른 인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처절한 현실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을 선임한 바 있다. 올해는 앞서 DS 부문 수장을 2022년부터 DS 부문을 맡아온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진행했다.

찾은 인사교체에도 이번 3분기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을 주요인으로 어닝쇼크(Earning Shock, 예상치 보다 낮은 실적)를 빚어 결국 임원 사과까지 발표했다. 전영현 DS 부문 부부장(부회장)은 지난달 8일 3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된 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기술경쟁력과 회사 앞날에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근원적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CEO가 실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분기 어닝쇼크를 전후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 부문장은 지난 1일부터 취임 이래 첫 DS 소속 임원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소통 강화와 쇠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됐다. 전 부회장은 지난 8

월 사내 공식 메시지에서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의 벽’,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꼽으며 토론 문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전 부문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내 분위기는 다소 암울하다. 사내 구성원들이 지적한 고위직 인력적체로 시작한 CL4(8년차 이상) 이상 희망퇴직 신청 개시에도 별 기대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내 구성원의 현 연령대 구성은 경쟁사 등과 비교해도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9월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20대 임직원 수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21년 8만9897명에 달하던 20대 직원은 지난해 7만2525명으로 1만7372명(19.3%)이나 줄었다. 20대 비중이 33.7%에서 27.1%로 하락했다. 반면 40대 이상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구성원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내 고령화 분위기를 두고 대졸 공채를 통해 입사 해 9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이미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고 지적했다. 부서별로 다르나 CL2(5년차이하)까지도 비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 가능한 상황으로 고령화와 인력 적체에 대한 해결 보다는 사실상 인력 다이어트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희망퇴직 또는 자진사퇴한 유망한 임직원들은 경쟁사로 모두 떠났다는 증언을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 엔비디아 내 3만 명의 직원 중 약 400~500명 가량이 삼성전자 출신이다.

B씨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번의 실패와 도전 속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지만 현재 삼성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며 “안전제일주의와 보신주의가 상부에 팽배한 현 상황 속에서 단순히 희망퇴직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영입한 세바스찬 승(승현준) 전 삼성리서치 글로벌연구·개발(R&D) 담당 사장(소장)도 보수적인 사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기반 사업 환경에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 내에서 협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내부 유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 이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미국 동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 트럼프 ‘승리’ 선언... 경합주 모두 우세

### 2024 미국의 선택

최대 격전지 3곳서 연달아 승리  
트럼프 후보, 당선 유력 소식에  
“역사상 본 적 없는 정치적 승리”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을 확실시했다. 트럼프 후보는 7개 핵심 경합주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예상됐던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에서 이기며 일찌감치 승기를 거머쥐었다. 나머지 경합주 5곳도 우세를 보이자 트럼프 후보는 조기 승리선언을 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 수가 각각 16명씩 걸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 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관련기사 2·3면>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 이상을 확보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앰다튀 보도했다.

트럼프의 당선 유력 소식이 전해지

자 트럼프 후보는 6일 밤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 과정을 “사상 최고의 정치 운동”이라고 언급한 뒤 “책임 이후 바이든·해리스 4년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귀환으로 미국이 황금기를 맞게 되리라며 대표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도 외쳤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개표 과정에서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일찌감치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후 러스트벨트 대표 경합주이자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를 쥐며 승리의 기반을 굳혔다.

이미 외신들 사이에서는 미 대선 개표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0시 50분 기준 대선 승자 예측 결과 트럼프의 승률이 95%에 달하며 당선 가능성에 대

해 매우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시 57분 현재 집계한 확보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248명,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214명이었다. 뉴욕타임스는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95%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예상대로 알래스카주의 3명의 선거인단까지 확보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확정짓게 된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다.

이외에도 위스콘신과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주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0개 주에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해리스 후보는 이날 따로 연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지지자들과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현장에 모인 인파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승일 기자 won@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금투세 폐지 후폭풍에... 민주 “올해 안에 상법 개정 반드시 추진”  
▲나경원 “인구·기후위기 대응 실천적 대안 찾겠다”... 총서 발간 /사진 뉴시스

▲딥페이크 대응 강화... 범죄수익 몰수·위장수사 확대·영상 ‘先차단 後심의’  
▲민주 황정아 “9일은 국민 행동의 날... 윤 특검 수용해야”



▲이재명 “정부·여당 상법개정 반대 회한... 흠치는 걸 허용하지는 거나” /사진 뉴시스  
▲민주, 윤 대국민담화에 “특검 입장 못 밝힐 회견이라면 철화해야” 압박